

고려 향리, 지방을 다스리다

서성호 | 113호 고려1실 | 18:00~18:30

후삼국 시기 호족들은 관반官班이라 불리는 통치조직을 운영하며 지역을 거의 독립적으로 다스렸다. 고려는 후삼국 통합(936년, 태조 19) 후 집권화를 이뤄가면서 호족들의 관반 조직을 향리지鄉吏制로 대체하였다(983년, 성종 2). 반독립적이던 호족의 지배조직이 국가체제 말단에 위치한 향리 조직으로 된 것이다.

향리 조직의 최고위직인 호장戶長과 그 아래 부호장副戶長은 대체로 후삼국 시기 호족의 후손들로서, 양반과 뚜렷이 구분되던 조선시대 향리에 비해 그 지위가 높았다. 선조[호족]의 기반을 이어받은 이들은 고을의 실질적 통치자였다. 특히 호장은 개경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부가 공인한 도장으로 문서 행위를 하며 공물·조세의 수취와 노동력 징발을 비롯한 고을의 업무를 책임졌다. 또 유사 시에는 지방군을 지휘하고, 책봉이나 장례 같은 국가적 경조사나 정월 초하루에는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듯 고을을 대표하여 임금을 알현하였다. 호장은 또한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고을 수호신인 성황신이나 산신에 대한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불탑이나 불구佛具를 세우고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사佛事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호장을 비롯한 향리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던 향리들은 중앙의 문무 품관, 즉 양반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 선군選軍 등을 통해 군인을 거쳐 무신이 되기도 하고, 특히 호장의 손자나 부호장의 아들 이상은 제술과製述科를 통해 문신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5품 이상의 고관을 여러 대에 걸쳐 배출하는 문벌로 성장한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 호족의 후예들이 중앙의 지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비진골 출신의 고려 왕실이 역시 비진골 출신의 호족들을 아우르며 후삼국까지 통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런 역사 발전의 일면일 수 있다.



그림 1. 경주 호장 딸의 묘지명

제53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4월 5일)

2017년 제1차 일본실 정기교체 「1711년 조선통신사와 도카이도 53차」 연계

조선통신사의 길-도카이도東海道 53차次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8:00~18:30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총 열두 차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다. 초반 3회에 걸친 통신사는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의 송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으며, 그 이후의 통신사는 주로 에도 막부의 새로운 쇼군將軍의 취임이나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에도 막부는 1709년 제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 1662~1712]가 쇼군 직을 승계하자 대마번주對馬藩主 소 요시미치[宗義方, 1684~1718]를 통해 조선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숙종肅宗(1661~1720)은 정사에 조태억趙泰億(1675~1728), 부사에 임수간任守幹(1665~1721), 종사관에 이방언李邦彦을 각각 임명하고, 49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했다.

『동사일기』는 바로 이 1711년 조선통신사행단의 부사副使였던 임수간任守幹(1665~1721)이 저술한 사행록使行錄이다. 사행록이란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보고 겪은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당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역사와 지리는 물론, 당시 선비들의 대對 일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조선통신사가 해로를 거쳐 교토에 도착한 후, 쇼군이 있는 에도[江戸]까지 갈 때 이용한 길이 도카이도[東海道]이다. 그리고 이 길에 위치한 53개의 역참이 도카이도 53차이다. 조선통신사는 약 487.8km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 에도로 이동하며 보고 관찰한 풍경에 대한 감상을 사행록에 남겼다. 임수간도 『동사일기』에 도카이도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리 관 소장 우키요에浮世繪인 <도카이도 53차>와 2016년 구입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도카이도 53차도 병풍>은 임수간이 여행한 18세기에서 백여 년 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각 역참의 특징적인 풍경을 잘 묘사하여 『동사일기』의 관련내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2016년 구입 소장품 첫 공개 <도카이도 53차 병풍>, 에도시대 18~19세기, 종이에 채색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과 복원

조연태 | 307호 중앙아시아실 |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벽화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자였던 이상수, 안병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수는 1979년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을 조사하여 국내에 기초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다음 세대인 안병찬은 1990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베제클리크(柏孜克里克) 석굴 벽화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제15굴의 서원화誓願畫를 고찰한 논문을 발표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벽화 2점의 원 위치를 새롭게 판명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991년 독일 베를린인도박물관에서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처리와 심도 있는 연구에 관심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벽화 보존처리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원화誓願畫 단편斷片(본관4047)과 천불도千佛圖 단편斷片(본관4069) 등 6건 7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보존처리는 과학적 조사 및 분석→세척→나무액자 해체→벽체 강화 및 보강→벽체의 지지체 부착→안료층에 부착된 보호지 제거→액자 제작 및 마감처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 현재에는 10~12세기 서원화 단편(본관4045)을 보존처리 중에 있다.



그림 1. 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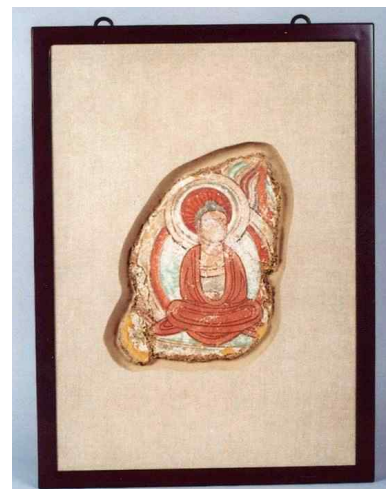


그림 2. 보존처리 후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 (15)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과 동물은 함께 창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집트인들은 동물이야말로 주변 환경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동물에게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일 강의 가득한 물고기, 땅 위의 가젤과 사자, 머리 위의 멧금류 등을 관찰하여 동물의 다양성과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능력은 곧 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집트가 국가로서 형태를 잡아갈 즈음, 특정 동물에게 중요한 상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는 하늘을 솟구쳐 날아오르는 모습과 날카로운 시력 때문에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소는 다산과 모성애가 강한 동물로 인식하여 점차 태양을 출산하는 하늘의 여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칼(개)은 이미 신석기시대에 가축으로 길러져 양치기로서 파수꾼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1왕조 때부터 이집트인들은 본격적으로 여러 종류의 자칼 신을 숭상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칼 형상 혹은 자칼의 머리를 가진 인간 형상의 아누비스입니다. 아누비스는 오시리스의 방부 처리를 담당했던 신으로 사후세계 또는 사후세계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신으로 추앙받았고, 이집트 전역에서 미라 제작자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또한 자칼은 죽은 자가 묻혀 있는 사막의 가장자리를 배회하였기 때문에 무덤의 보호자로도 여겨졌습니다. 「사자의 서」 제 125장에서는 오시리스의 재판을 도와 죽은 이의 심장무게를 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피라미드 무덤방 안의 벽면에 새겨진 주문의 하나인 피라미드 텍스트에서는 그를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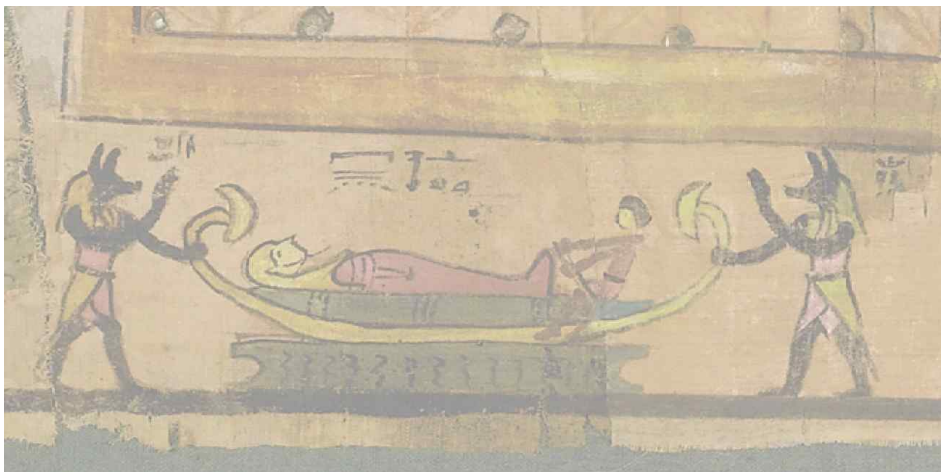


그림 1. 죽은 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아누비스